

[한국일보]쭈저우 코리아타운 건설, 한중 협력 기반될 것

"쭈저우 코리아타운 건설, 한·중 협력 기반될 것"

수교 18 주년 맞아 송쥘 칭화대교육기금회 부이사장 방한

박민식기자 bemyself@hk.co.kr

중국 칭화(淸華)대학 교육기금회의 송쥘(宋軍·49) 부이사장이 한·중

수교 18 주년을 맞아 쭈저우(蘇州)에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

'코리아타운' 건설 등을 협의하기 위해 19 일 방한했다. 그는 10 년여간

칭화대학 산하 46 개 기업을 총괄하는 지주회사 칭화대학기업집단 총재를

지내며 일산에 건설 중인 '차이나문화타운' 투자 등 굵직한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.

송쥘 부이사장은 "차이나타운뿐 아니라 양국 간 호혜를 위해 2008 년부터 중국 내 코리아타운 건설사업을 적극 돕고 있다"며 "특히 쭈저우 호숫가에 대지 17 만여㎡ 규모로 짓는 한중녹색과기원은 한·중 기술협력의 기반이 될 것"이라고 기대했다.

그는 1994 년 2,000 만위안(약 36 억원)에 불과했던 교육기금을

10 억위안(약 1,800 억원) 가량 모아 수완을 인정받았고, 올해 4 월

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교육기금회 부이사장 자리에 올랐다. 그는

"졸업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컸다"며 "한국의 SK 그룹 등 해외 기업도 많이 지원하고 있다"고 말했다.

그는 특히 일본 기업 파나소닉의 홍콩 책임자로 칭화대 2 억위안(약

360 억원) 등 홍콩과 중국 대학 10 곳에 평생 10 억위안을 기부하고 지난달

세상을 떠난 홍콩 신썩(信興) 그룹 회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. "그분은 1930년대 칭화대를 졸업했던 우리 학교 선배였어요. 제가 92~94년 부연구원으로 홍콩대에서 공부했던 도서관도 그분의 기부로 지어진 건물이더군요. 이런 분들의 뜻을 모아 빈곤 학생과 녹색사업 등 새로운 연구 영역 지원에 힘을 겁니다."

1984년 칭화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2000년 이후

중국 차세대 지도부의 핵심으로 떠오른 386세대 칭화방의 일원이다.

<저작권자 © 인터넷한국일보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입력시간 : 2010/08/22 22:34:32 수정시간 : 2010/08/23 11:08:07